

EQ 생활태도검사의 타당화 연구

문 용 린¹⁾ 강 민 수²⁾ 최 경 아³⁾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지능이론의 확장과 변화라는 움직임 속에서 정서지능이라는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자기보고식 EQ검사서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에 적용한 EQ 생활태도검사의 타당성을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가상 상황을 통한 정서지능 지필검사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용린(1999)이 개발한 EQ 생활태도검사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험적 타당화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EQ 생활태도검사는 개인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정서와 기분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서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와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Mayer와 Salovey의 정서지능 이론을 토대로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EQ 생활태도검사는 정서지능의 하위 구성요소인 정서인식과 표현능력, 정서의 사고촉진능력, 정서의 활용능력, 정서조절능력이 함께 작동하여 한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상 상황을 통해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로 개발되었다. 특히 정서지능의 요소 중 가장 상위단계인 정서조절능력 영역이 강하게 부각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문항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한 반분신뢰도 검사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 문항은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이라는 2개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정서지능, EQ 생활태도검사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청주교대 시간강사

3) 교신저자 : 최경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E-mail : cka333@empal.com

I. 서론

프랑스의 Binet가 학교에서의 학업수행을 예언하기 위해 1905년 최초의 지능검사인 IQ를 제작한 이후 거의 100년 동안 IQ는 인간 행동의 예측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IQ(Intelligence Quotient)라는 명칭 아래 기억력, 추리력, 이해력, 계산 능력 등의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보았던 관점이다(문용린 외 2002).

그러나 현재의 지능이론과 연구의 동향이 지적 능력의 범위를 과거에 주로 다루었던 인지적 영역을 넘어 정의적 영역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학업수행의 성공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사회적, 직업적 성공까지를 예언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적 능력의 개념화는 더욱 복잡하고 단정 짓기 어려워졌다. 특히 IQ로 대변되는 지능의 개념은 제한된 지적 능력을 진단하는데 그칠 뿐 실제 사회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지적 능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 아래 IQ는 그 아성에 맞서는 새로운 지능 이론들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된다.

Salovey와 Mayer(1990)가 학문적으로 정립한 개념인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도 이러한 새로운 지능 이론 중 하나이다. Salovey와 Mayer는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인 “Emotional Intelligence (1990)”를 통해 1920년대 E. L. Thorndike의 논문에서부터 1988년에 이르는 162개의 무게 있는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정서지능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을 “사회지능의 한 하위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정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즉, 정서지능은 풍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라는 대상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인지적 능력이나 기술을 의미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들은 정서와 지능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는 적응적이고 기능적이어서 인지활동과 후속행동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이들이 말하는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하며, 삶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는 적응을 잘하고 정서적으로 성숙되었으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유능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Mayer, DiPaolo & Salovey, 1990; Salovey & Mayer, 1990).

한편 Goleman(1995)은 Gardner(1983)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과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을 종합하여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정서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Goleman은 IQ로 대표되는 학문적 지능이 생활의 변화에 대한 준비나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 등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한 개인의 성공을 예언할 때 IQ와 표준화 성취검사에 의해 측정된 지력(brainpower)은 마음(mind)의 질보다 덜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Goleman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한 연구에서는 IQ가 성공 또는 행복의 10~20%만을 설명해 준다고 보고되었다(Salovey & Mayer, 1997). 그는 특히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다룰 줄 아는 정서능력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정서조절, 동기부여, 타인의 정서 살피기, 때와 장소에 맞는 유쾌한 말투와 제스처와 같이 대인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EQ 능력이 있어야 개인과 집단 속에서 인간다운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대안적 개념으로 정서지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의 인지 중심의 지능이론들은 지능에 대해 많은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Gibbs, 1995)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능의 개념을 정의적 영역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와 학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실세계에서의 성공에 대한 예언력을 높여 보고자 하는 연구 경향으로 인해 정서지능은 그 개념이 대두되면서 학계를 비롯하여 사회 저변에서 기대 이상의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정서지능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정서지능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예를 들면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Competence, Personal Intelligence)만큼이나 한마디로 정의 내려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지능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과학적 구인으로서 정서지능을 개념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Salovey와 Mayer가 내린 정서지능의 정의이다.

Salovey와 Mayer(1990)는 다양한 인지적 및 사회적 문제해결 과제에는 정서적 정보가 개입되며 그러한 정보는 인지적 정보와는 다르게 처리되고 또한 그 정보를 다루는 데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정서지능을 정의 내렸으며, 이것을 정서와 지능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보고 이 정의에 따른 정서지능의 모형을 발표했다.

이 때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일반 지능(Intelligence)에 대비되는 말로서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서지능은 사고능력이나 기억력, 계산력, 추리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발휘되게끔 하는,

또는 그런 능력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정서능력이라 볼 수 있다. Salovey와 Mayer는 정서지능이 일종의 사회지능이며 특질(trait)이나 재능(talent)과는 구별되는, 감정과 관련된 능력(ability)으로 보았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적 사건에 대한 추론(emotional reasoning)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이고 지능적인 개념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Mayer & Salovey, 1997).

요컨대 정서지능은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적응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다(문용린, 1997).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에 적합하고 정서조절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정서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Salovey & Sluyter, 1997), 정서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이를 대인 관계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Salovey와 Mayer(1997)는 위에 제시된 정서의 지능성에 대한 연구 하에 1990년에 제시한 정서지능의 정의와 모형에 대해 학계에서 쏟아진 여러 비판과 조언·일반 지능과의 변별성, 구성요소간의 위계성, 사회지능과 정서지능 개념의 구분의 모호성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수정된 정의를 발표하는데, 정서지능을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사고를 촉진하는 감정을 생성시키고 접근하는 능력, 정서와 정서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조절능력의 네 가지 능력을 포함하는 지능”이라고 정의했다(Salovey & Sluyter, 1997, p. 10).

이러한 정의는 정서지능이 성향, 성격, 재능 등의 심리적 특성이 아닌, 행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결정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성과 정서 상태를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능력임을 의미하며 다른 사회지능이나 일반 지능 속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서 표상과 관련된 정보의 부호화(coding)와 해독(decoding)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서지능 정의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지능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서지능의 정의만큼이나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다. 이를테면 Bar-On(1997)과 Goleman(1995) 등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정서지능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서지능 구성요소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모형은 정서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면적 심리 특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인간의 다면적 심리 특성과 구별되는 정서 정보 처리 능력에만 초점을 두고 정서지능의 모형을 구성하고자 노력한 Mayer와 Salovey (1990)는 그들의 초기 모형에서 정서를 처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일반 지능과의 변별의 문제나 구성요소간의 위계성 문제, 또한 사회지능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Salovey & Sluyter, 1997).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보다 견고하고 세련된 개념적 틀을 제시하기 위해 수정된 정서지능의 정의에 따라 Mayer와 Salovey는 정서지능의 구성내용과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서지능의 독특한 능력을 규명하는 동시에 정서지능과 일반 지능과의 공통점을 부각시킨 점(문용린 외, 1998), 정서지능의 영역이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되며 영역별 능력이 수렴적으로 구성된 점(Zeidner & Matthew, 2001),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능력들이 “위계”(능력의 중요성에 따른 위계)와 “수준”(복잡성의 증가에 따른 발달수준)으로 배열되었다는 점(문용린, 1998)에서 초기 모형과 근본적인 차이를 갖게 된다.

그들이 제시한 정서지능의 최근 모형은 다음과 같다.

정서지능의 4영역 모형¹⁾

영역 I. 정서의 인식, 평가, 표현
- 신체적, 심리적 상태의 정서를 규명하는 능력 - 타인과 대상의 정서를 규명하는 능력 -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감정과 관련된 요구를 표현하는 능력 - 정확한 감정과 부정확한 감정, 솔직한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 표현 등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영역 II. 사고에 대한 정서의 촉진
- 외부와 관계있는 감정에 따라 사고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능력 - 감정과 관련 있는 판단, 기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생한 정서를 발생시키는 능력 - 다양한 관점을 취해보기 위하여 기분의 흐름을 이용하는 능력과 이러한 기분으로 유도된 관점을 통합하는 능력 - 문제 해결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서 상태를 활용하는 능력
영역 III. 정서 정보의 이해와 분석: 정서 지식 활용
- 다양한 정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능력 - 감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인식하는 능력 - 복합적인 정서와 서로 상반된 감정 상태와 같이 복잡한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 - 감정 간의 추이 등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
영역 IV : 정서의 반영적 조절
- 유쾌한 감정, 불쾌한 감정 모두를 받아들이는 능력 - 정서를 모니터하고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 정보성과 유용성을 판단하여 정서 상태를 느껴보고, 지연해 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능력 -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1) Salovey와 Mayer(1997)가 새롭게 개작한 표로서 The Positive Psycholog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Snyder, C. R. & Lopez, S. J(Ed.), p.16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를 참조(곽윤정, 2004).

새로운 모형에서 정서조절 능력은 가장 복잡하고 복합적인 능력이며 정서인식과 정서 이해 등의 하위 정서지능 능력이 선행될 때 갖추어지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영역 I에서 영역 IV로 내려갈수록 상위의 정서지능 능력이다.

또한 그들은 정보처리이론에 기초하여 인지의 4수준이 있다고 보았다. 1수준은 인식과 이해이며 2수준은 판단과 유추, 3수준은 해석과 적용, 4수준은 통합이다. 정서지능의 구성요소의 각 영역에서 이러한 인지적 발달 수준에 따라 4수준으로 나누어진다. 즉 한 영역 내에서도 수준 I에서 수준 4로 갈수록 점차 세련되고 복잡한 수준의 능력을 보인다. 이러한 4영역 4수준 16요소의 모형은 정서지능이 단순한 심리 특성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조직적인 구조를 이루며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며 각 영역에는 발달의 수준별로 4가지 수준에 따라 4요소가 포함된다.

가장 낮은 수준인 정서의 지각, 인식, 표현(Perception, Appraisal, and Expression of Emotion) 영역은 인간 각자가 정확하게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 정도와 관련되며 정서상태를 파악하고 내적 감정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정서의 사고 촉진(Emotional Facilitation of Thinking) 영역은 정서가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한 변화와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사고를 형성하고 촉진하게 만드는 정서 능력과 관련된다.

정서 지식의 활용(Understanding and Analyzing Emotions: Employing Emotional Knowledge) 영역은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정서의 반영적 조절(Reflective Regulation of Emotion) 영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 영역으로서 정서적-지적 성장의 향상을 위하여 정

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 있다. 정서와 지적 향상을 위한 정서의 의식적인 조절은 가장 상위의 수준이라 볼 수 있으며 의식적 조절의 대상은 긍정적·부정적 정서 모두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서지능이 대중적 관심을 끌고 정서지능의 학문적, 실제적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고 논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서지능에 대해 보여지는 관심과 기대만큼 정서지능의 성공 예언력의 과장, 정서지능의 개념, 정서지능의 측정 등 많은 부분에 대해 학자들은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정서지능에 관한 많은 연구물들이 정서지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뒤따르지 않은 채 실용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정서지능 개념이 심각하게 오용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테면 Goleman(1995)은 Salovey와 Mayer(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술한 자신의 저서인 “Emotional Intelligence”를 통해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정서지능을 능력이 아닌 바람직한 성격 유형이나 성격 특성으로 설명하면서 그에 입각한 정의를 내려 정서지능을 자아개념이나 동기 등의 심리적 변인들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서지능 모형으로 두 가지 핵심 영역과 네 가지의 하위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에는 구성요소 산출 원리와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론적, 가설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서지능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 대중 또한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에 많은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면서 정서지능의 개념을 다방면에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관심이 오히려 정서지능의 개념을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Mayer,

Salovey, & Caruso, 2000).

따라서 정서지능이라는 구인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에 대한 이론적 고찰뿐 아니라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새로운 심리학적 개념이 실제 교육현장과 임상 및 조직 환경 등에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의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정홍섭, 1996). 즉 정서지능의 정확한 측정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지능의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재고 있는 인정할만한 양호도를 가진 측정도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정서지능의 개념 자체가 EQ라고 불릴 만큼 단 하나의 측정치로 나타낼 수 없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정서지능은 그 하위 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정서지능 정의상의 개념을 모두 측정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정서지능의 측정에 대한 연구들은 각 하위 구성요소의 측정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문용린 외, 1998).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국내외 정서지능의 측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측정 방법에 따라 크게 수행 중심 평가와 자기보고식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수행 중심 평가 방법은 실제로 정서를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나 성취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Mayer, Salovey, & Caruso, 1997, 1998)이며 자기보고식 평가는 응답자의 자기이해에 의존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식하고 평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특히 정서지능의 자기보고식 검사는 검사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정서지능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으로 청소년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연구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는 Bar-On(1997)의 EQ-i (Emotional Quotient Inventory)이다. EQ-i는 최근에 22개국에서 번역하여 사용할 정도로 정서지능 검사로서 그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EQ-i는 세 가지 검사 즉, 6-12세 아동용, 13-17세 청소년 용, 그리고 17세 이상 성인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 평정척도식으로 총 개인내 요인,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적응력, 일반적 기분 등의 5개 요인에 1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EQ-i는 15개 하위 척도 각각에 대한 점수 뿐 아니라 총점까지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EQ-i는 크고 다양한 표집 대상을 활용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정서지능의 이론과 별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EQ-i에 포함된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들이 새로운 개념이 아닌,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심리 구인들을 체계나 원리 없이 모아놓은 것으로 보이며 성격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Mattews, Zeidner, & Roberts, 2001).

또 다른 자기보고식 검사로는 Boyatzis, Goleman, 그리고 Hay/Macber(1999) 또한 Boyatzis, Goleman, 그리고 Rhee(2000)등이 개발한 Emotional Competency Inventory(ECI)를 들 수 있다. ECI는 제 3자 평정 방식의 평정척도로 정서지능을 인지적 능력으로 보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 ECI 역시 EQ-i처럼 정서지능과 별개의 개념을 측정하거나 정서를 다루는 능력이 아닌 성격이나 성향 등을 평정하고 있는 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곽윤정, 2004).

이 밖에도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인 정서인식과 표현 및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메타무드 상태 검사(State Meta-Mood Scale: SMMS)와 메타무드 특질 검사(Trait Meta-Mood Scale: TMMS)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순간적인 기분

의 측정을 측정하고 후자는 장기간의 조절 유형을 측정한다. 두 검사는 Mayer, Salovey, Goldman, Turvey, 그리고 Palfai(1995)등이 공동개발하였는데 모두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제거함으로써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이수정, 이훈구, 1997).

국내의 표준화된 검사로는 문용린(1997, 1999)이 제작한 정서지능검사를 들 수 있다. 문용린은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인 4영역 모형에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이입이라는 영역을 첨부하여 정서지능을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의 사고 촉진능력,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정서조절능력의 5영역으로 측정하였다. 문용린의 정서지능검사는 5점 척도로 평가되며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구분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자기보고식 평가 방법은 상정적인 수행(typical performance)을 측정하며 수행에 대한 내적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반응 편향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검사를 실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검사가 비교적 간단하고 쉬울 수 있다(Zeidner, Matthews, & Roberts, 2002). 또한 대다수의 자기보고식 정서지능 척도는 인지적, 정신적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인성적, 성격적 특성을 진단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개인의 언어능력이 정서지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Davis, Stankov, & Roberts, 1998).

그러나 수행 중심 평가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수행(maximal performance)을 평가하며 수행에 대한 외적 평가를 실시하고 반응 편향(response bias)이 최소인 평가 방법이지만 실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자기보고식 검사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가상 상황(simulation)을 이용한 지필 검사를 통해 정서지능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가상 상황(simulation) 지필 검사는 자기보고식 정서지능 검사의 일종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선호(preference)를 보고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반응 편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수행평가가 지니는 검사의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다.

McClelland(1973)는 심리검사 개발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면서 단순한 반응적 행동(respondent behavior)보다는 조작적 행동(operant behavior)에 초점을 맞추어 준거표집(criterion sampling)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검사가 준거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면 거짓반응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faking)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조화된 상황 즉 실생활처럼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하거나 효율성 정도를 평가하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검사의 예로는 Goleman의 검사지를 들 수 있다. Goleman(1995)은 Seligman이 제작한 낙천성 검사에서 문항 제작의 단서를 얻어 자기보고식 정서지능 검사지를 고안하였는데 이 검사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가상 상황을 제시하며 그 상황에서 자신이 택하고자 하는 정서 반응을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검사는 문항수가 적을 뿐 아니라 표준화를 거친 검사 도구가 아니며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충실히 반영한 검사도구가 아니므로 Goleman 자신도 이 검사를 자신의 정서지능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 상황을 통한 정서지능 지필 검사

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1999)가 1차 연구에서 개발한 EQ 생활태도검사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Q 생활태도검사는 모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내 정서지능 계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연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서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와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정서지능의 하위 구성요소-정서인식과 표현 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전환의 작동능력, 정서 지식의 이해 능력, 정서조절능력-가 함께 작동하여 한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상 상황을 통해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이므로 각각의 문항이 정서의 하위 요소 중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를 구별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EQ 생활태도검사는 정서조절능력 영역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고 Salovey와 Mayer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에서 밝히듯이 정서조절능력이 가장 상위의 능력이라고 볼 때 이러한 검사에서 점수가 높은 경우 정서지능의 모든 영역이 높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문용린, 1999).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S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8명과 서울시 소재 S 대학 및 E 여대에서 교육심리 과목을 수강하는 재학생 141명 등 총 23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남자 66명(28%), 여자 173명(72%)이었다.

표 II-1. 검사 대상의 구성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남	여	남	여	
	31	67	35	106	
합계	98		141		239

검사 도구 및 채점방식

1차 연구 시 개발한 EQ 생활태도검사(1999)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가상 상황을 제시하며 그 상황에서 자신이 택하고자 하는 정서 반응을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하여 총 28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본 검사는 정서지능의 하위 구성요소-정서인식과 표현 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전환의 작동능력, 정서 지식의 이해 능력, 정서조절능력-가 함께 작동하여 한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상 상황(simulation)을 통해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이다.

자세한 각 문항의 내용은 표 II-2와 같다.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검사들 대부분은 정서의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 스트레스 대처 등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서지능 이론에서 말하는 고차원의 정서조절은 정서라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인지능력이다. 서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전반적인 정서지능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검사는 자기보고식(self-report)검사이다. 그러나 본 검사는 한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일상적인 상황과 사건들을 제시하고, 상황에 적절하고 적합한 정서지능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보는 문항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즉, 가상적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평

표 II-2. 검사의 문항 내용 및 구성요소

문항번호	문항 내용(episode)	구성요소
1	생활장면 에피소드	타인조절
2	대인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3	회사생활 에피소드	타인조절
4	가정생활 에피소드	타인조절
5	면접시험 에피소드	자기조절
6	대인관계 에피소드	타인조절
7	대인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8	교통사고 에피소드	타인조절
9	부부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10	교통문제 에피소드	타인조절
11	친구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12	가족관계 에피소드	타인조절
13	친구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14	동료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15	동료관계 에피소드	타인조절
16	생활장면 에피소드	타인조절
17	대인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18	가족관계 에피소드	타인조절
19	직업생활 에피소드	타인조절
20	회사생활 에피소드	자기조절
21	대인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22	대인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23	대인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24	자기관리 에피소드	자기조절
25	친구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26	대인관계 에피소드	타인조절
27	이웃관계 에피소드	타인조절
28	가족관계 에피소드	자기조절

가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자기정서조절 및 타인정서조절 구성요소는 Salovey와 Mayer(1997)의 정서조절의 개념에 따르며, 이는 한 개인이 부정적인 정서가 개입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능력과 기술을 포함한다.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한 개인이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자신의 정서조절과 타인의 정서조절 문항의 내용과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채점 기준은 전문가 집단의 평정에 의해 결정

표 II-3. 검사의 구성요소 및 문항의 예

구성 요소	자신의 정서조절
내용	▪ 현재 상황에서의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 부정적인 정서를 가라앉히기
문항 예시	16. 당신은 오늘 아침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식구들도 모두 당신에게 짜증을 내었고, 며칠씩 버리며 오늘 꼭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일도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 요소	타인의 정서조절
내용	▪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가라앉히기 ▪ 타인의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기
문항 예시	12. 당신의 형제(자매)가 요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오늘도 학교에 다녀오더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말대꾸를 하였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되었는데 정서능력의 정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선택지마다 점수가 다르게 부여된다. 즉 한 문항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선택지에 따라 0점, 5점, 10점, 20점이며 따라서 총 28문항에서 560점이 총점이다.

검사는 고등학생의 경우 담당교과 교사의 협조를 얻어 윤리 시간에 실시되었고 대학생은 강의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검사 시간은 3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처리

먼저 일차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구한 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각 문항들의 잠재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정서지능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알아보고자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문항분석

먼저 검사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그리고 문항 변별도를 각각 산출하였다.

표준편차의 범위는 4.38에서 10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8문항의 전체 문항과 상관은 .21에서 .45까지의 범위로 유의수준 $p < .01$ 에서 양호하게 나타났다.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EQ 생활태도검사의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내적합치도 (N=239)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제거후 α
1	13.31	7.19	.6353
2	11.67	9.05	.6461
3	14.69	7.26	.6388
4	12.74	9.08	.6132
5	13.18	5.51	.6372
6	9.64	8.13	.6375
7	6.03	4.38	.6369
8	14.41	8.01	.6334
9	8.16	7.67	.6298
10	9.81	9.35	.6319
11	4.60	8.44	.6166
12	10.92	4.94	.6369
13	14.14	7.33	.6291
14	12.13	6.42	.6206
15	14.94	5.64	.6198
16	11.72	7.28	.6172
17	16.09	7.16	.6254
18	13.64	9.33	.6126
19	10.46	10.01	.6422
20	6.95	9.54	.6115
21	5.27	7.69	.6223
22	5.56	7.01	.6302
23	7.62	9.73	.6255
24	8.87	9.96	.6135
25	13.81	9.27	.6170
26	7.53	7.84	.6412
27	9.92	5.65	.6373
28	6.86	9.51	.6233

산출결과 각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6132~.6461로 비교적 양호한 검사라 할 수 있다.

신뢰도

본 연구에서 EQ 생활태도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계수와 더불어 조사 문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반분신뢰도를 구하였다. 본 검사의 내적합치도 계수와 반분신뢰도를 살펴보면 III-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반분 신뢰도가 채택되었으며,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신뢰도 계수가 .66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III-2. EQ 생활태도검사의 신뢰도

문항수	내적합치도 계수	반분신뢰도 계수
28	.6489	.6674

타당도

검사의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를 알아보았다.

내용 타당도

본 검사는 1차 검사문항을 수정보완하기 전에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관련 검사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검사의 하위영역과 영역별 문항을 결정하여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검사 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대학원 석사 이상 전문가에게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으며 1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구인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EQ생활태도의 구성개념을 알아보고자, 문항분석을 통해 얻어진 28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전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239명의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EQ생활태도의 구성요인으로서 적절한 요인의

표 III-3. EQ생활태도 검사문항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1	요인2	공유변량
21	.541	-8.1E-02	.285
20	.533	8.231E-02	.299
11	.527	-5.8E-03	.277
28	.524	-7.6E-02	.273
23	.472	5.8E-02	.221
9	.472	-.159	.235
14	.462	.138	.233
25	.455	9.074E-02	.215
24	.408	.247	.228
7	.381	-.231	.121
18	.116	.593	.378
8	-4.8E-02	.472	.221
15	.230	.453	.277
16	.263	.423	.268
4	.210	.406	.224
1	-9.8E-02	.385	.151
10	5.542E-02	.368	.142
19	-.140	.344	.130
3	-.123	.328	.115
고유치	2.968	1.842	
설명변량(%)	10.599	6.580	
누적변량(%)	10.599	17.179	

수를 결정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eigen value), 누적 설명변량 비율, 스크리 검사(scree test), 그리고 해석가능성 등의 기준을 아울러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 방법은 EQ생활태도성향이 실질적 내용이 되는 EQ의 하위요소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인간의 연관성을 가정하는 사교회전(oblimin)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EQ생활태도 검사의 요인 수는 요인 1로 묶인 자기정서조절과 요인 2로 묶인 타인정서조절이라는 2개의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3이상을 보인 결과만을 제시하면 표 III-3과 같다. 요인부하량이 .3이하로 나타난 문항들은 대체로 정서조절의 측면에서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이 혼재되어 작용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IV. 논의 및 결론

최근 학교교육 현장이나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인지적 능력의 신장과 함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연구물들이 보고 되고 있다.

인지 능력과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이 지능이라는 IQ라고 할 때, 지능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능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까지의 지능이론은 인간의 다양한 지적 능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IQ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IQ검사는 인간의 정신 능력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지적 능력만을 측정하고 있으며, 둘째, IQ검사는 인간의 정신 능력

중 지적 능력만을 측정할 뿐 사회적이거나 정서적인 능력은 결코 측정할 수 없다. 셋째, IQ 자체가 부정확하며, 학교공부와 성적 및 향후의 출세와 성공을 예측해 주는 유용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지능이론과 지능검사 도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인간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포괄적인 지능이론을 바탕으로 검사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러한 지능이론과 지능검사 도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간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포괄적인 지능이론을 토대로 삼아 검사를 개발하는 시도로 확대·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과 Mayer와 Salovey의 정서지능이론이 그것이다. Gardner는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인간의 지능을 8가지로 언급하고 있으며, Mayer와 Salovey는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을 하나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정서지능을 제창하였다. 정서지능은 Mayer와 Salovey의 이론을 바탕으로 몇몇 검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정서지능 검사가 지능검사와는 달리 현재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첫째,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하위요인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서 지능처럼 몇 개의 하위검사 점수를 합산하여 하나의 점수로 계산해 내기가 쉽지 않으며, 둘째, 정서지능 검사는 정답 찾기가 아니라 느낌과 감정의 통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필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간의 비교를 통하여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지수화 하여 순서를 매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기(문용린, 1996)때문에 EQ검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조성되고 있지 못한 듯 하다. 특히 정서지능을 재는 것은 통제능력이나 문제 상황

의 해결과정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의 문항을 구성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재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을 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의됨은 물론 관찰가능하고 일반적인 요소와 개인의 독특한 차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서지능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내면적인 과정을 거쳐 외현적으로 나타날 때 정서지능이 작동하는 상황을 직접 제시해 주고 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Q 생활태도검사는 그동안 정서지능을 자기보고식 검사로만 측정해오던 형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다양한 능력 중 정서지능과 관련된 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개발되었다. 이처럼 자기보고식 검사형식의 틀을 벗어나 EQ검사가 실제 문제해결 능력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검사의 내용적 틀이나 형식이 구체적인 현실세계와 유사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준거행동들을 포함시킬 때 예측 타당력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준거 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면 거짓반응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정서지능을 하나의 심리적 영역으로 판단한다면, 이에 따른 정서지능검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요구하는 측정도구이다. 첫째, 정서지능검사는 개인의 속성을 정의하거나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행동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일부를 표집한 것이다. 따라서 정서지능검사가 측정하는 행동표집이 얼마나 대표성을 갖느냐에 따라 검사의 질이 평가된다. 둘째, 정서지능 자체에 관한 문제로서 정서경험을 잴 것인지 아니면 정서상황을 함께 측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

다. 만약 단순히 정서경험만을 재는 것이라면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의 강도만을 재게 된다. 그리고 정서상황을 재는 것이라면 정서가 유발되는 상태만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서지능 검사는 정서상황과 정서경험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분명히 정서는 인지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정서를 유발시키는 조건이 효과적이 되려면 정서를 경험하는 개인은 이를 관련성 있는 체계로 부호화 하여야 한다. 세계를 해석하는 것은 인지과정이며 정서를 유발하는 조건은 이런 해석의 결과로 일어나는 인지적 표상이기 때문이다 (Ortony, Clore, & Collins, 1988). 결국 정서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은 개인의 경험과 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사물, 즉 자극상황의 해석에 의한 것이다.

정서성은 동일한 외적인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반응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정서지능의 측정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적 능력의 차이를 밝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어떠한 상태에서이든 간에 사람들은 정서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행위는 개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Mayer와 Salovey의 정서지능 이론을 토대로 한국인들의 정서능력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개발한 EQ 생활태도검사를 타당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정서지능 이론을 토대로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EQ 생활태도검사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한 반분신뢰도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 문항은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이라는 2개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서지능 이론의 본래취지에 충실한 검사일 뿐만 아니라 단위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비교적 간

편한 검사이다.

그러나 정서지능 하위요인들 간의 독립성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사도구의 보편적 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검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항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접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에피소드 구성으로 정서지능 능력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검사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객관식 문항이 갖고 있는 시행착오적인 정답반응을 통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서지능 이론에서 주장하는 지능의 다양한 측면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고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곽윤정 (2004).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 (1995).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신호 (2000). 인간지능으로서의 정서지능: 그 논점과 쟁점. *초등교육연구* 2000, 14(1), 23-46.
- 문용린 (1999). 새한미디어 EQ 생활태도검사 결과 보고 원고(미발행).
- _____ (1998). 정서지능 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국아동학회 기초강연*. 서울여대.
- _____ (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출판사.
- _____ (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자료집.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서울대 교육연구소.
- 문용린, 곽윤정, 이강주 (1998). 정서지능 연구의 성과와 전망 98-2.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모노그래프.
- 문용린, 곽윤정, 조희순 (2002). ‘자연의 친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23(4), 215-226.
- 윤현석, 김언주 (1996). 감정 지능의 의미와 측정. *교육심리연구*, 10, 183-204.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수정, 황혜정 (2003). CBT 정서능력검사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41-67.
- 이영석 (2002). 감성 지능 연구 동향 및 방향. *성균관대 생활과학 연구소 2002년 춘계학술 발표회*. 1-25.
- 장희경 (2000). 아동의 정서지능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4(1), 79-103.
- 정홍섭 (1996). 정서지능, 일반지능 및 정서안정도와 대학생의 적응과의 관계. *부산교육학연구* 9(1), 103-123.
- 하대현 (1997). 새로운 지능 개념으로서의 정서지능의 이해: 그 타당성과 한계. *한국심리학회 동계세미나*.
- Bar-On, R. (1997). *Bar-On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A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Toronto, ON: Multi-Health Systems Inc.
- Davies, M., Stankov, L., & Roberts, R. D. (1998). Emotional intelligence: In search of an elusive constru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75, 989-1015.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New York: Basic Books.
- Gibbs, N. (1995). The EQ factor. *Time*, 60~68.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s.
- Matthews, G., Zeider, M., & Roberts, R. D. (2002). *Emotional Intelligence: Science & Myth*. Cambridge: The MIT Press.
- Mayer, J. D., Caruso, D. R., & Salovey, P. (2000).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27(4), 267-298.
- Mayer, J. D., Salovey, P., Caruso, D. R., & Sitarenios, G. (2003).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With the MSCEIT V2.0. *Emotion* 2003, 3(1), 97-105.
- Morand, D. A. (2001).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Managers: Assessing the Construct Validity a Nonverbal Measure of "People Skill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6(1), 21-34.
- Mayer, J. D., DiPaolo, M. T., & Salovey, P. (199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and Sluyter, D.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 3-31). New York: Basic Books.
- McClelland, D.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 Ortony, A., Clore, G. L., & Collins, A. (1988). *The Cognitive Structure of the Emotions*. Cambridge: CUP
- Salovey, P.,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Sluyter, D.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Basic Books.
- Pfeiffer, S. I. (2001). Emotional Intelligence: Popular But Elusive Construct. *Roeper Review*, 23(3), 138-142.
- Tapia, M. (1999). The Relationships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Inventory. *Annual Meeting of the mid-Sout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xploring the validity of EQ Episode Test

Yong-Lin Moon

Min-Soo Kang

Kyung-Ah Choi

Dep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EQ Episode Test available for Korean people on the basis of Mayer & Salovey's theory in which a vulnerable point of anteceded researches only emphasizing Intelligence Quotient as a human ability is recognized and corrected.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theor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movement of extension and change of traditional intelligence theory, and to investigate the test validity applied to real situation beyond self-report EQ test. EQ Episode Test, made up of 28 items, is developed based on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of Mayer and Salovey. Test results showed that it is reliable in the split-half reliability coefficient. In addition, these items are found to be the two factors of self regulation and others regulation. Discussions abou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follows. In conclusion, all the results are showing that the newly modified EQ Episode Test can be used as a credible tool for the measurement of Korean people's EQ.

Key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EQ Episode Test